

## 정보와 지식은 다르다

한원균 | 문학평론가 · 정주과학대 문예창작과 교수

새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생들과 만날 것을 기다리는 동시에 새로운 강의에 대한 의욕 또한 충만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학기 시작 전,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때면 늘 따라오는 고민이 한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책을 읽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오늘의 소설>이라는 강의에서는 대개 중·단편소설 20여편, 장편 1편 정도를 다루곤 합니다. 강의 제목 그대로 '오늘의 소설' 이지요. 어제의 소설도, 내일의 소설도 아닌 오늘의 소설이란 문학의 현재성, 현장성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 읽어야 할 작품도 많지만, 매 학기 새로운 작품의 목록을 선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읽어야 할 단행본 목록을 제시할 때나, 참고문헌이 제법 있는 강의를 위해서 학생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읽히는가가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되곤 하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작품을 읽게 한 후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제대로 읽지 않거나, 작품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 작품에 접근하게 됐고, 이 책

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혹은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짜깁기해서 제출하곤 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모든 작품에 대해 매시간 감상문을 제출하는 것이고, 발표자는 강의시간에 즉석에서 지정하는 것이죠. 특정 단행본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책에 직접 밑줄을 긋고, 자신의 생각을 메모해가면서 읽은 후 책을 통째로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언젠가 미시간 공대의 조벽 교수가 이 같은 방법을 소개한 적도 있었죠.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제가 언제나 강의 첫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곧바로 자신의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의 유용성은 일회적 가치가 지배적이어서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면, 책을 통해 얻는 정보는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거나 생산적인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쉽게 판정하기 어려운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또 다른 지식을 생산할 가능성이 인터넷 정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거나 약화돼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작품읽기 독후감 제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를 미리 제시하고 직접 구술시험을 치러서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인터넷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하자는 발의도 종종 합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제안이 학기초의 열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지도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좀더 느리게 들어가면서, 밑줄을 긋고, 때로는 책을 권 채 산책하는 풍경을 요즘엔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책읽기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아날로그적인 사유의 의미를 묻는 행위가 인터넷 문화의 허상을 바로잡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통권 제321호 | 2002년 4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조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박천홍

기자 ————— 강성민 김장근

————— 차정신 박옥순

사진 ————— 김경록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 박기아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 732-1434 · 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 이일수

출판저널 ————— 110 - 190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 - 1431 · 2 | 편집

—————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 722 - 1174

E-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a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